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제11회 이사회

2009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건과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결과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건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회자 2인 (박시은, 지진희)을 금번 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결과에 관한 건
-비공개로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제1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회의가 지난 10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1호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관련 법령 개선에 관한 건
-각 위원이 건축물 내부마감공사가 사용

승인 후 건축주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4회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TF팀

제4회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TF팀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설계발주제도 개선추진에 관한 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함
①건축기본법시행령에 건축관련전문가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제7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7호에 건축설계 포함
- 제2호 : 사후설계관리업무에 관한 건
-사후설계관리업무에 대한 용어정의의 수정과 건축사 대가기준의 해설서 마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협의하여 정리하기로 함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사무소 명칭에 관한 건
-동 사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서 법리적인 자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닌바 협의사항에서 삭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설계 발주제도에 관한 건
-해당 TF팀은 회장지시 TF팀으로서 오랫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정책은 전반적으로 법제위원회에서 자문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바, 해당 TF팀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세훈 전임회장 별세, 지난 12월 4일 향년 69세로



우리협회 제25대 회장을 역임한 이세훈(李世勳) 전임회장이 지난 12월 4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故 이세훈 전임회장은 평생 동안 건축계에 몸담아 작품활동과 건축사 권익신장에 헌신해온 원로 건축사이다. 최근까지도 우리협회 고문직과 대한건축학회 참여자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서울

특별시건축사회 17대 회장 및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 평생 후학양성과 건축계 발전에 헌신해왔다. 지난 12월 6일 서울성모병원(前강남성모병원)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

게 진행됐다. 고인의 호남고 동창이자 50년 지기인 하종용(덕원여고, 영상고 교장 역임)씨의 조사가 있었으며, 최영집 회장은 영결문에서 "故 이세훈 고문이 후배들에게 준 가르침을 바탕으로 건축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는 남양주 선산이다.

주요약력

- 196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66~200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대표
- 1975~200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1976~1978 한국항공대학교 도시설계 강사
- 1978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1979~1990 관악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
- 1981~1984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강사
- 1987~1989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1989~199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회장
- 1996~1998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17대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1997~199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및 민원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3~2004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 2003~2004 대한건축사협회 제25대 회장

■공제사업제2소위원회(4차)

공제사업제2소위원회(4차)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보증·용자 약정 및 담보물 관련 협의
- 보증·용자 약정 및 담보물 관련하여 세 부적인 사항을 협의함.

■제10회 정책위원회

제10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 건축사의 업역 조율(coordinate) 업무를 전문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대

가 없는 책임 구조를 개선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의 수입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자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사업을 제안함

- 제2호 : 발주제도 관련 정책위 대응방안에 관한 건
-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사업을 바탕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최영집 회장, 김진애 의원 국회 등원 기념 모임 참석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11월 17일 하이얏 호텔에서 개최된 김진애 의원(민주당) 국회 등원 기념 모임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 대한건축학회 손성열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람 수석부회장 등 30여명의 건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김의원을 축하했다.

김의원은 "아마도 건축을 아끼는 사람 중 국회의원이 된 것은 본인이 처음이라고 본다.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건축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집 회장, '건설산업 청렴 결의대회' 참석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





난 11월 19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청렴 결의대회'에

서 주요 참석자들과 업계 자정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건설업체의 바리가 업계 전체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권홍사 건단련 회장과 이재오 권의 위위원장을 비롯해 건설 관련 단체장과 주요 건설사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문(전문 참조)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경쟁 정착, 입찰가격 협정·담합 금지, 건설기업·근로자 간 상생협력, 덤핑 수수 지양,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안전시공, 윤리경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을 채택했다.

권홍사 건단련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사수주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덤핑 수주를 없애 업계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와 건단련 주관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가 개최됐다.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



회의록 서명을 마친 3단체 대표. 왼쪽부터 최영집 회장, 왕푸징 NABAR 회장, 와타나베 사다오 일본건축사협회합회 이사

한국, 중국, 일본 건축사단체의 연례행사인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의 주최로 중국 장시성 징강산시에서 개최됐으며, 우리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을 대표로 11인이 참가했다. 24일에 개최된 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에서는 각국의 건축사 업무범위, 외국건축사의 법적지위, 업무대가기준, 외국건축사와 국내건축사간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토론이 있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이근창, 김성민, 최재희 국제위원이 자료준비와 토론을 담당했으며, 국토해양부 최종화 주무관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 측 담당자들 또한 참석해 삼국 간, 민·관 간의 입체적인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25일에는 한·중·일건축사협의회 본회의가 개최되어 각국의 APEC등록건축사 프로젝트 추진현황(담당: 신춘규 이사)을 점검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문 (전문)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기간시설 건설과 주택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수주를 통해 국위를 선양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건설업체수는 급증하여 건설시장내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기업과 건설인들이 수주과정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은 저가수주로 이어져, 많은 건설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다음과 같이 솔선수범하여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가꾸고, 저가낙찰을 지양하며, 나아가 건설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건설공사 수주 및 시공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 우리는 입찰시간에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건설기업과 건설근로자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공사의 품질과 기업의 생산성을 무시한 채 헐값에 공사를 수주하는 이른바 '덤핑수주'를 지양한다.
- 우리는 부실자재나 미숙련 노동력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 확보와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입찰 및 시공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사회적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통해 상시 노력한다.
- 우리는 친환경 공법·자재 사용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환경복원·재생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상기 선언이 실효성있게 실천되도록 단체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건설업자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건설업계의 윤리의식 정착과 청렴정신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9년 11월 19일
전국 200만 건설인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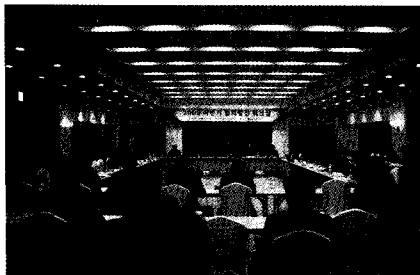
하고, 등록건축사 관련 법령 및 제도(담당: 여구호, 민규암 국제위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의 웹기반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소개 및 시연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차기 회의의 개최는 2010년 가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로 제안하여 중, 일대표단이 동의하였으며, 신정철 광주건축사회장의 환영연설과 함께 협의회는 마무리됐다. 오후에 개최된 건축세션은 현지 건축사 및 건축학도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우리 대표단의 이근창 국제위원(주.업앤디)과 진 린(주)아키텐실장이 각각 “한국의 현대 건축”, “신도시 개발과 그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여 현지 건축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 다오위엔구촌 견학과 환송오찬을 끝으로 3일간의 행사는 성공리에 종료됐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신우식 회장, 충남개발공사 이사 취임



충남개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는 전국 공모를 통해 비상임이사에 지원한 총 2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8명의 후보자를 충청남도에 추천했으며, 신우식 충남건축사회 회장이 충남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 4명 중 1명으로 최종 선임됐다.

2009년도 하반기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7, 8일 양일 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대명 솔비치에서 '2009년도 하반기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협회 임원을 포함한 시도건축사회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시도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도건축사회 및 본

협회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천보고, 분임토의 등이 개최됐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의 2009년 주요사업 추진실천보고에서는 지역 건축문화발전과 건축사의 위상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본협회 각 위원회의 2009년 추진실천 보고에서는 13개 상설위원회와 9개 비상설위원회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분임토의에서는 4팀으로 나눠 각각 진행됐고, '2009년도 실천 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의견', '2010년 실천계획(안)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 및 추가 과제', '건축사 단체 통합 관련 가협회 성명서에 대한 의견 및 협회의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으며, 분임토의에 대한 팀별 결과보고 순서와 각 시도건축사회 및 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평가가 있었다.

2009 FIKA 송년회 개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2009 송년회'가 지난 12월 11일 서초동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김창수 회장,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 및 각 단체 임원 100여명이 참석해 다사다난했던 2008년 건축계의 한해를 마감하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 하반기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등산대회 개최



2009년 하반기 전국건축사 등산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전남 장성에 위치한 내장산 국립공원 자락인 백암산에서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건축사란 주제아래 '미래의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그려 보세요' 행사를 개최, 백양사 관광객 및 산행에 참여한 등산객들에게 건축사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기념품 추첨 및 정기총회 개최하여 전국 회원 상호간의 끈끈한 유대를 다지기도 했다.

경상북도건축사회, 명품청사 건립전략 포럼 개최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박재웅)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2일 호텔 인터블고 아이리스홀에서 '공공청사의 뉴-패러다임(New-Paradigm)'이란 주제로 '명품청사 건립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성 국회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경북건축사회 박재웅 회장, 도관계장, 시·군 공무원, 건축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은 김연중 사무관(행정안전부)이 '자치단체 청사건립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호화·과대청사 신축 억제대책', '친환경 에너지절약 청사 건립'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울시 신청사 건립사례'라는 주제로는 박성근 서울시 문화시설사업단장이, '신청사 건립구상' 주제로는 남택진 경북도청 도청이전추진단장 등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애물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 '명품청사를 위한 CM제도 활용의 특성' 계명대학교 신규철 교수, '공공청사의 그린화 에너지관리공단 김대룡 실장',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공건

축_KT중앙 연구소 이재욱 연구원', '미래를 짓는 오늘의 건축 디자인 경일대학교 현택수 교수'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기초강연 및 주제발표내용은 도청 사 건축 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충청남도건축사회,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비체펠리스 콘도미니엄에서 충남건축사회 소속 임원 30여명과 충남도청 및 시군청의 시설 사무원 10여명이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다.

신우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축행정,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적법한 건축인허가 신청 시의 소수 민원의 이유로 보완요구 사항의 개선방향 제시, 세움터 운영에 따른 개선방향,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조례 및 주차장조례의 불일치 사례, 2개 시에 걸친 신도시 개발에서의 건축적용기준이 상반되는 사례, 건축허가전의 현장조사업무 대행 확대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창현 건축도시과장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건축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건축사의 행정처분 요구가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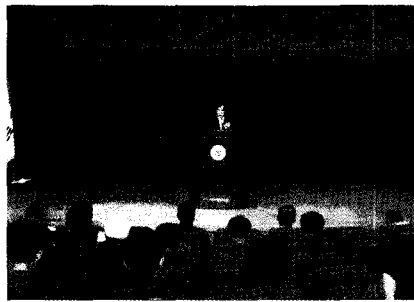
충청북도건축사회, 부동산개발 사전교육 신청

충청북도건축사회(회장 구창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과 관련하여 건축사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자는 2010년 1, 2월 중 주2회(8시간) 4주 교육으로 진행되며, 청주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현재 미정)

• 문의 : 충북건축사회 043-223-3084~6

'충북건축문화 발전세미나' 개최



충청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2월 4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09년도 충북건축문화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공무원, 교수, 학생 등 210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대학교 반영운 교수와 (주)정림건축 정용교 건축사가 '친환경 건축물의 접근과 이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건축계소식

갤러리 서미, 'Architecture & Design: Technical Object' 전

갤러리 서미에서는 건축사가 디자인한 소파, 벤치, 테이블 등으로 생활공간을 재연하여 공간을 설계했던 건축사들의 감성과 미학을 함께 호흡해 볼 수 있는 'Architecture & Design: Technical Object' 전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28일까지 서울 청담동갤러리 서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건축사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독립적인 오브제로서의 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비트라 서울'의 지원을 받아 기획된 유명 건축사 프랭크 게리,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코르뷔제 등이 설계한 가구작품의 미니어처가 전시된다.

주요 전시작은 미스 반 데어 로에, 사를로트 페리앙, 오스카르 니에메예르, 지오 폰티, 토비아 스카르파 & 아프라 스카르파 부부의 작품이다. 그들은 가구를 통해 건축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인체공학적 설계와 자유로운 디자인을 시도하였고, 형태와 기능의 진부함을 넘어서 생활가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더니즘 건축사들의 가구 작품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20세기 초 그들이 추구했던 시대정신과 실험성이 현재 우리의 삶과 공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술적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 문의 : 02-511-7305, www.seomitus.com

KCC, 이맥스 클럽 신규 회원사 조인식 개최

